

정보화시대 대비한 전자출판 진흥책

출판협회 주최 '멀티미디어 시대의 전자출판' 세미나

전자출판물도 일반도서와 마찬가지로 면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0월 27일 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멀티미디어 시대의 전자출판'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어령씨(전 문화부장관)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국가경쟁력과 문화산업」이라는 기조연설을, 정상조씨(서울대 교수)는 「전자출판물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라는 주제문을 각각 발표했다. 두 발표문을 요약 발췌한다.

멀티미디어 환경 조성은 국가목표

이어령 — 오늘날 멀티미디어 환경은 전자문명의 기술개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21세기에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는 국가목표와 그것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비전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는 국가 목표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멀티미디어는 단순한 전자통신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 민주주의, 산업사회를 총괄하게 된다.

현대의 전쟁은 반도체 전쟁이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무기를 발사하는 시대다. 더욱이 놀랄만한 것은 걸프전에 참가했던 병사들 대부분이 전자게임을 어려서부터 즐겨왔던 세대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이들은 처음 경험하는 전쟁을 마치 게임하듯 수행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전자게임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전자게임을 출판의 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것을 즐기는 바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출판계의 동지들이 될 것이며, 기반이 될 것이다.

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멀티미디어의 도래는 산업주의시대, 기계화시대의 종언을 뜻한다. 멀티미디어는 단순히 음성이나 음향, 영상의 복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광섬유를 통해 그것들을 각 가정으로 보내는 수단이 바로 멀티미디어다. 이렇게 될 때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된다. 컴퓨터 단말기를 제조해서 가정에 보급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장이 생기는데, 대강 2010년에는 8조원의 규모가 될 것이라 한다. 멀티미디어 개발에 따라 엄청난 시장과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디어의 혁명은 기술문제인가? 아니다. 인쇄혁명은 활자를 만든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활자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활자를 매개로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퍼뜨리는, 다시 말하면 책의 형태로 사용된 것이 인쇄혁명이었다. 마찬가지로 하드웨어는 그것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용하는 문화산업자들에 의해 문화·문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책이란 문자를 주로 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책의 형태는 바뀔 수 있다. 책의 본질은 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성에 있다. 문자성을 떠나면 이미 그것을 책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전자매체 수단(영화, 비디오, 텔레비전 등)은 비문자 전달매체 수단이었다. 하지만 컴퓨터가 사용되면서 전자매체 수단이 문자전송 매체수단으로 변하게 되었다. 전자매체가 활자를 주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환경을 만들면서 이제는 비디오도, 영상도, 음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지난 10월 27일 열린 세미나 전경.

악도 기본적인 책의 개념으로 들어섰다. 문자 중심의 책과 비문자 중심의 전자 미디어가 만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멀티미디어시대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뉴미디어와 출판이 보완관계인지, 경쟁적 관계인지를 설정해야 한다. 양자가 적대관계라면 출판은 살아남지 못한다. 절대적으로 보완관계에 서야 한다. CD-ROM은 복제가 가능해서 가격도 싸고, 보존기간도 길다. 때문에 책으로 출판하고 동시에 그 기획을 CD-ROM으로 만드는 보완관계가 필요하다. 기획 때부터 동시출판개념을 가져야 한다. CD-ROM의 편리한 점은 책을 보완해 줄 수 있다. 반면에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에 있어서 '책을 넘기는' 인간의 본능은 CD-ROM이 생겨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91년부터 94년까지 한국에서 생산된 CD-ROM은 112개에 불과하다. 가격은 책의 10배에 이른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용할 수도 없다. 이것은 역정보화사회다. 여기에 21세기 멀티미디어의 장애물이 있다. 멀티미디어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회제도와 법이다. 모든 법제가 멀티미디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쳐져야 한다. 경쟁수단에서도 자유시장 경쟁에 들어가야 막강한 국가경쟁력이 생긴다.

저작권법 개선방안 검토해야

정상조 — 과학기술의 발전 또는 전자출판물의 등장으로 종이 아닌 새로운 매체에 의하여 정보가 전달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책은 무엇인지 검토해볼 필요

책임의 원칙 :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한스 요나스 지음 / 이진우 옮김 / 384면 / 9,000원

한스 요나스가 지구의 종말이라는 생태학적 위기에 직면한 인간의 실존 상황에 대해 고찰한 환경 철학서로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기존의 전통윤리학으로는 현재의 생태학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책임의 명법"을 제시한다.

논리적 사고

R.L. 퍼틀 지음 / 한상기 옮김 / 240면 / 5,500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데 필요한 기초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하여 일상의 상황에서 좀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용적 안내서이다. 또한 적절한 사례도 제시되어 있어 입문서로 적절하다.

과인의 자연주의 인식론

김영남 지음 / 212면 / 5,500원

철학박사학위논문 제 4권째 책으로, 지식의 문제에 대한 과인의 입장을 해명함에 있어 필자는 <자연화된 인식론>과 규범을 허용하는 "자연주의 인식론"을 구별하고 후자가 진정한 과인의 주장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술과 느낌

바실리 칸딘스키 예술론 / 예술과 느낌 / 막스 빌 엠크 / 조정옥 옮김 / 256면 / 6,000원

추상 회화의 대가로 꼽히는 바실리 칸딘스키의 예술과 예술론에 대한 시론을 펼친 책이다. 칸딘스키 자신이 직접 서술한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전통적인 논고들을 통해 실제의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스밀리 922-4993

제5회 간행물윤리상 시상식



시상식 전경

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원홍)가 선정하는 제5회 간행물윤리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11일 열렸다.

94년도에 간행된 도서잡지서 중에서 윤리성 향상과 출판문화 발전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이상의 출판부문은 문예출판사(대표 전병석)가, 공로부문에는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장병헌)이, 저작부문에는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출판부문 수상자인 문예출판사는 30여년에 걸쳐 '문예교양도서'를 발간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지적 성장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게 됐다고 심사위원들은 밝혔다. 문예출판사는 또한 우리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한국문화연구서」를 발간하는 등 출판업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우리나라 단행본의 질적 향상에 공헌했다는 평가도 아울러 받았다.

공로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음란 폭력물간행물의 불건전한 내용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 단체는 또한 음란물을 사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감시활동과 추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는 우리나라 만화를 윤리적,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 이 분야의 새 지평을 개척했다는 점을 높이 사 저작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간행물윤리위원회 측은 밝혔다. 이 교수는 만화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유리한 소재를 발굴해서 정서순화의 올바른 윤리관 정립에 기여해 왔다.

가 생기게 되었다.

전자출판물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존 저작권법 등 각종 관련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한 해석과 적용상 문제점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자출판물에 관련된 제작업자, 원저작자, 이용자, 전산망공급업자, 도서관 등 관계자들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다. 관련된 조세제도도 불합리한 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CD-ROM이나 온라인데이터베이스 또는 멀티미디어 형태의 전자출판물이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에 인류의 생산방식과 생활방식, 더 나아가 사고방식까지도 바꾸어 놓게 될 중요한 투자대상임을 고려하면, 전자출판물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와 그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 특히 저작권법의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출판권을 "저작물을 인쇄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전자출판물의 출판권 인정 여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과 문제는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출판권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저작권자와 출판업자의 이해조정을 위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거나 문화체육부가 출판계약서 등의 내용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책과 전자출판물을 동시에 퍼낼 경우 계약에 따라 출판권이 정해지겠지만 출판허락 계약의 경우에도 전자출판물의 제작 등에 관한 별도의 허락이 없는 한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전자출판물의 제작에 동의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밖에 자료목록, 편집저작물, 복합저작물 등의 전자출판물의 법적 권한

에 대한 문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전자출판물의 제작·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저작물이 용이하게 복제·개작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신속하고 간이하게 저작물 이용료를 징수하고 지급하는 효율적인 절차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원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관이 원저작물의 등록을 받고, 공표된 원저작물의 목록과 저작자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저작권집중관리기 이루어져야 한다. 저작권집중관리기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작권 존재 여부의 사실을 알기 어렵고, 이용료 산정도 매우 어렵게 된다. 포괄적인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컴퓨터와 모뎀 등 각종 통신장비에 대하여 사적복제보상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복제에 대한 규정도 전자출판물의 실용화와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전자출판물을 도서로 취급하지 않고 있어서 전자출판물의 제작, 공급, 수입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일반도서 취급 기업보다 엄청난 조세부담을 안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이나 관세법 등에서 도서는 면세 대상이지만 전자출판물은 관세부과대상으로 분류된다. 전자출판물의 내용이 도서와 마찬가지로 문자정보가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도서와 같이 유형적인 매체로서 전자적 기록 매체에 수록되어 있는 출판물의 경우에는 도서와 마찬가지로 면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전자출판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현대적인 언론 출판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정리·이성수 기자



국내

최초로

번역된

완역본

이

에

아

아에네이스

·베르길리우스 지음
·유영 옮김

‘아에네이스의 노래’라는 뜻의 이 작품은 로마 최대의 시인인 베르길리우스가 쓴 로마의 건국 서사시이다. 로마의 전설적인 건국 시조인 아에네이스가 트로이 멸망 후 로마의 터전을 찾아가기까지의 고난과 사건, 사랑 등을 다룬 미완성 작품이다. 그리고 농촌 생활에 대한 찬가라 할 수 있는 《전원교향시》가 함께 수록되었다.

헤원 세계 문학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24
TEL 333·9991

헤원 세계 문학 69

세계의 신화 전집

·하선미 편·

● 헤원 세계 문학은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신화나 전설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신화나 전설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의 세계와 풍요로운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이 책에서는 그리스, 게르만, 슬라브,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마야·아즈텍·잉카 등의 신화 전설이 소개되고 있다.